



즐기가 샘 솟는 도서관



도서관 소식

- 포천교육청에서는 매년 다독 학생에게 글로벌 인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은 후 그에 따른 독후활동도 함께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 중 읽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신청함에 도서명, 저자, 출판사를 적어 넣어 주세요.
 - 정교전자도서관, 많은 이용부탁 드립니다.
1. 컴퓨터를 통한 전자책도서관 이용방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 도서관에 문의하세요)
 - 학교 홈페이지 배너(정교초등학교 전자도서관) 클릭
 - 즐겨찾기 등록 : <http://jeonggyo.dkyobobook.co.kr/>
 -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잊으셨다면 사서선생님을 찾아오세요)
 -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 이용 시 "e서재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2.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시
 - "play store" 혹은 "앱스토어"에 접속
 - 스마트폰 -> "교보문고 new전자도서관"어플 다운로드 후 사용

정교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16-2호 2016.5.16

발행처: 정교초등학교
발행인: 이승근

도서관에서 약속

- ☺ 말소리는 소곤소곤
- ☺ 발걸음은 사뿐사뿐
- ☺ 오락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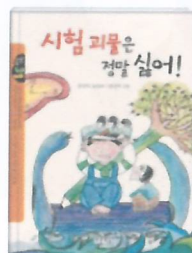
추천도서

제목: 또야와 세발자전거
지은이: 권정생
출판사:효리원
대상: 저학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의 사소하면 서도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림동화이다.

제목: 시험 괴물은 정말 싫어!
지은이: 문선이
출판사: 푸른책들
대상: 중학년



결코 시험에서 해방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제목: 수민이의 왕따 탈출기
지은이: 문선이
출판사: 푸른책들
대상: 고학년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왕따 문제! 한 사람의 영혼을 갇아먹는 왕따로 고민과 갈등, 그리고 괴로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창작동화이다.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 ☺ 학생 : 1인 2권
- ☺ 대출기간: 7일 (1회 연장가능)

☺ 연장신청 :
직접방문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책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읽으려는 이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은 평등합니다. 책은 등불처럼 환합니다. 읽는 이에게 길을 열어주는 책은 희망입니다. 책은 옳고 그름을 압니다. 읽으면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책은 지혜입니다. 책은 마음의 벽을 허무합니다. 읽을수록 점점 커지는 사랑입니다.

문선이 작가와의 만남

문선이 작가님의
저서를 읽고 참석해
주세요~~~

- ★행사일: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 ★장소: 정교초등학교 다목적실
- ★대상: 3학년-6학년

문선이 강사약력(1967년 서울출생)

학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졸업

수상) 1996 눈높이 아동문학상(동시)「별님」,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동시 「아버지」

2005 제9회 창비좋은 어린이책 창작부문 대상

2000 MBC 창작동화대상 장편부문 대상

1996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동시부문 대상

저서)

‘수민이의 왕따탈출기’, ‘지엠오 아이’, ‘시험 괴물은 정말 싫어’, ‘마두의 말 씨앗’,
‘양파의 왕따 일기1, 2’ 등

독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 헤르만 헤세

도서관이랑 친구해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정확한 성명은 도서관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위	성명	학년	대출권수
1	이*민	1	53
2	이*규	4	39
3	김*빈	1	29
4	남*태	1	26
5	김*준	1	25
5	김*민	2	25
6	이*상	4	22
7	이*민	6	19
7	임*영	1	19
8	김*호	1	18
9	이*기	4	17
10	문*영	6	16



명문가의 독서비법

실학의 산실 박지원 家

박지원은 조선 시대 학자들의 필독서였던 사서삼경보다 선비들이 보지 않던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를 더 즐겨 읽었다.

또한 역사서나 소설 등 끌리는 책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끌리는 책을 찾아 읽는 것이 독서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말했다. 박지원은 책을 읽을 때 남들보다 속도가 더뎠지만 읽는 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답하거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일에서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고 한다. 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독서로 지속적인 독서를 실천해 보자.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중